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죄 사함의 기쁨

성경: 누가복음 7장 40-50절

Tag: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눅7:40-50)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꽤 많지만, 누군가의 죄가 사

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많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는 말씀도 많다.

죄 사함 받은 당사자가 아직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든지, 죄 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틀림없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잊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그마한 죄를 짓고, 자그마한 벌을 받고, 자그마한 용서를 받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자그마한 죄를 크게 벌할 수는 없으나, 자그마한 죄로 큰 죄를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죄는 사람과 떼수 없지만, 죄사함의 선포가 중요하다. 왜냐면 죄사함의 기쁨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사함의 기쁨이 죄를 이기는 중요한 경험이다. 하나님께 대한 속죄와 사람들에 대한 속죄가 다름과 그 방법도 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로 인한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으로 구원이 현실적인 결과다)**

어떤 예수님을 존경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비판하려는 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남의 잔치에 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 여인이 괘씸하였다.

흔히 이럴 때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이 여인이 소문난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 죄 많은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여겨졌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 노예들의 행동으로 지극한 겸손을 상징)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는 아닌가 보군. 만약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면 가만 있지 않았을텐데 이 여인의 정체를 알 길이 없는 사람이군...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에게 질문하셨다.

빛 주는 자가 두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 이었다.(천만원, 백만원)

두 사람 중에 누가 빛 주는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경제 논리에서 사랑논리로 변환하심)

단순한 산수식이다.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자가 아니겠습니까? (시몬 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말 할 수 없었다. 속으론 당황하면서)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죄 많은 여인을 보시고 시몬과 비교 하셨다.
당시에 손님 초대할 경우 사람들은 흔히 손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고(노예를 시킴), 입을 맞추고, 머리에는 향유를(없으면 적어도 감람유를) 부어 주는 것이 예법이였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예법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
워낙이 제자들이 바글거렸을 뿐만 아니라, 시몬에게는 그럴만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극진한 겸손과 사죄를 의미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죄 사함에 대한 극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였다.

-오직 사랑만이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다. 놀라운 영적 원리.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대부분의 창녀가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팔려가는 분위기, 여러 남자들에게 휘둘리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배신감, 남자들에 대한 배신감 등, 자기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창녀의 운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 하였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됨으로 인한 감격이 흘러 넘쳤다.

-그녀 자신은 그동안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말끔히 씻는 경험을 한 것 같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실로 모든 죄를 용서 받았고, 모든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놀라운 기쁨에 휩싸이게 하였고, 그 기쁨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 여인의 장점은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내는 정직함이었다. 점잔을 빼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여장부와 같은 성품도 갖추고 있었다.(혈루병 여인처럼 소심하지 않음.) 감사의 표현도 주눅거리지 않고 과감하고 시원하게 하였다.

-많은 죄를 사함받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이었다.

*죄사함의 기쁨은 여러 가지를 변화 시킨다. '죄사함의 기쁨'에 대한 반댓말은 '죄책감'이다.

-악한 사람이라 해서 모두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선한 사람이라 해서 모두 작은 죄만 짓는 것도 아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한다.

-진짜 악한 사람은 회개치 않는 사람이며,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죄를 감추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다.

-죄에는 답이 없다. 죄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억울한 피해자가 감당한다. 그 피해는 또 다른 죄를 잉태하고 죄책감은 떠나지 않으며 마치 빈곤의 악순환처럼 죄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죄에 대한 솔루션은 오직 죄 사함 밖에 없다. 인간의 사법 시스템은 죄인을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애초에 인간은 죄를 범하기는 해도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예수님의 선행. 사람마다 가치관과 민감한 주제가 다르니 화두를 달리 선택하시는 예수님.

시몬에게는 경제논리로. 빛과 탕감의 이야기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식논리로. 나에게 물을 줘 다오. (만약 이 여인에게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물 한 바가지에 얼마요? 바가지 얼마면 빌려 주겠소? 천원인데 길어다 주면 만원. 만약 사랑논리로 다가 간다면, 아름다우시군요. 혹시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주시겠소... 됐어요, 지금도 남자는 많아요...)

죄 많은 여인에게는 사랑논리.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진심을 알고, 너를 인정한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은 거기에서 무너졌다. 핫김에 저질렀던 모든 불륜도 일순간에 소멸되었다.

*예수님의 설명은 경제 논리에서 사랑논리로 옮겨감. 셈법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있는 모든 죄인에게는 오직 한가지 '믿음'만이 죄사함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함. (형사 논리;유죄나 무죄나)

-죄사함의 기쁨이란, 감옥에 가지 않는 기쁨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삭계오 셈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밀양'의 오류-전도연/이창동-반기독교 영화) 속죄의 네배 원리. (민사논리;원금, 벌금, 손해배상, 위자료)

왜 시몬에게는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을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퍼져있는 위선이라는 전염병(율법주의) 때문이다.

-이미 그들은 착한 척, 법을 지키는 척을 하면서 나보다도 너는 더 나쁘자나.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는 프레임에 빠졌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의 저주에서 풀려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복음을 맛보고, 남겨진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함.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율법주의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고, 모든 정죄감에서 풀어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삭계오와 같은 결단을 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다윗의 기도 성경: 시편 51편

Tag: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밧세바는 예전부터 다윗과 모종의 썸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윗은 당시 정략결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밧세바는 헛 사람
우리야에게 시집갈 수 밖에 없었을 것. 중년의 무료함에 빠진 다윗에
게 밧세바는 치명적 유혹이 되었을 것. 그는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끝
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상황은 임신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윗은 하늘
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야를 농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다윗 가문에게 저주를 내릴 수 밖에 없
었다.

다윗의 기도는 혹독한 징계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다윗의 신앙고백
인 셈.

신약적 탕감과는 거리가 멀다.

카톨릭은 구약적 죄사함에 가깝고, 개신교는 신약적 죄사함에 가깝
다.

하나님은 나단선지자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로 그리스도의 속죄전통
을 세워 가셨다.

다윗의 기도는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는 다윗의 회개 기도에서 모범을 찾아야 한다.

)

2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 인간들끼리의 회개는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님. 상식에 맞추어 하면 됨.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죄의 저주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 중심의 진실함. 가식적 회개는 물거품.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 꺾인 뼈들의 즐거움, 형벌을 통한 즐거움.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정결한 마음에 대한 열망. 죄를 미워하는 마음. 당해봐야 안다.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진정한 회개만이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 자원하는 심령; 구원에 대한 열망이 회개에 이르게 함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범죄자의 경험담이 범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14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보호하심을 거두실것에 대한 두려움과 열망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51:1-19)